

키움증권 — 점유율 -1.25%p, 이익 +92%

1H26 지배주주 순이익 1조 1,564억원 = FY2025 연간의 103.7% — 시장이 커진 몫이다

- 1H26 영업이익 1조 4,102억원(+92.2%)이 FY2025 연간(10년 최고)의 94.8%다.
- 주식 중개 점유율은 19.21% → 17.96%로 내려갔는데 위탁매매 수지는 +30.3%다.
- 계열 저축은행 두 곳이 모두 적자다 — 키움저축은행은 손실이 4배로 커졌다.

반기가 연간을 넘어섰다

7월 30일 공시된 2Q26 잠정실적은 영업이익 7,890억원(YoY +93.2%, QoQ +27.0%), 지배주주 순이익 6,801억원(+119.6%)이다. 상반기 누계는 **영업이익 1조 4,102억원(+92.2%)**, 지배주주 순이익 **1조 1,564억원(+112.2%)**이다.

지배주주 순이익은 반기가 FY2025 연간(1조 1,150억원)을 이미 넘었다(103.7%). 영업 이익도 연간 1조 4,882억원(10년 최고)의 94.8%다.

계단이 두 번 올라갔다 — 분기 영업이익이 2025년 내내 3,255~4,089억원이었는데 1Q26 6,212억원, 2Q26 7,890억원으로 2분기 연속 최고를 갱신했다(표 1).

같은 공시에 **별도 기준 2Q26**도 실렸다(매출 15조 4,799억원, 영업이익 6,910억원). 연결 7,890억원과의 차이 980억원이 자회사 몫인데, **세전이익은 별도 7,902억원이 연결 7,888억원보다 커** 자회사가 세전 단계에서는 이익을 깎았다.

⚠ 매출액은 증권업 특성상 평가손익이 합산되므로 **성장률로 읽을 수 없어** 영업이익·순 이익만 다룬다.

점유율은 잃고 수지는 늘었다

주식 중개 점유율이 19.21% → 17.96%로 1.25%p 내려갔다. 그런데 위탁매매 수탁수료는 7,139억원 → 8,878억원(+24.3%)으로 늘었고, 매매수수료비용(1,855억원 → 1,991억원, +7.3%)을 뺀 **수지차익은 5,285억원 → 6,887억원(+30.3%)**이다.

즉 시장 거래가 커진 몫이 점유율 상실을 덮었다. 비용이 수수료보다 훨씬 느리게 늘어 **수지율이 74.0% → 77.6%**로 3.6%p 개선된 것도 함께 작용했다(표 2).

다만 점유율 하락은 방향의 문제다 — 개인 투자자 중개가 이 회사 수익의 축이므로, 거래대금이 식는 국면에서는 점유율이 곧 이익의 크기가 된다. 이번 작업에서 확인한 삼성증권도 10.8% → 10.3%로 내려갔고 NH투자증권은 8.17% → 8.86%로 올랐다.

저축은행 두 곳 적자, CAPEX 20배

계열 저축은행 두 곳이 모두 손실이다 — 키움저축은행 -38.7억원 → **-150.4억원**(손실 3.9배), 키움YES저축은행 -320.0억원 → -221.5억원(손실 축소)으로 **합계 -371.9억원**이다. 연결 순이익(1조 1,150억원) 대비 3.3% 규모라 전체를 흔들 크기는 아니지만 **한 곳은 손실이 커지는 방향**이다(표 3).

CAPEX가 **이례적으로 늘었다** — 98억원(FY2023) → 216억원 → **4,408억원(FY2025)**으로 20배가 됐다. 항목 내역이 요약 범위에 없어 성격은 특정하지 않았다.

재무 규모도 커졌다 — 자기자본 5조 6,319억원 → 6조 7,224억원(+19.4%)인 반면 **부채 총계는 50조 565억원 → 74조 4,514억원(+48.7%)**으로 **부채비율이 888.8% → 1,107.5%**가 됐다. ⚠ 다만 증권사 부채에는 고객예탁금 등이 포함돼 제조업 차입금과 성격이 다르다. 영업활동현금흐름도 3년 연속 마이너스(-6조 3,999억원)인데 **트레이딩 자산 증감이 포함된 결과**여서 이익의 질 지표로 쓰지 않는다.

환원은 최근 3년에 집중돼 있다 — 4건 모두 3년 내이고 **2026년 5월 14일에 자기주식 취득결정과 주식소각결정이 같은 날** 공시됐다. 10년 희석 공시는 0건이다. PER 6.25배는 금융 81사 중 10% 위치로 낮고 PBR은 1.09배다.

국면 판단

거래 확대 수혜 점유율 하락

현재주가 (26/08/07)

277,500원

목표주가

제시하지 않음

투자자문업이 아니므로 투자 의견·목표주가를 산출하지 않는다.

1순위 점검 지표

**주식 중개 점유율
(19.21% → 17.96%)**

Key Data

시가총액	7.3조원
PER / PBR	6.3배(81사 중 10%) / 1.09배
외국인 / 공매도잔고	28.5% / 0.1%
부채비율(FY2025)	1,107.5%(아래 주)
10년 희석 공시	0건(환원 4건, 전부 3년 내)
위험신호 / 표시점수	1건(부채) / 95점 A+

영업실적 및 주요 지표

구분	2023	2024	2025	1
영업이익(억원)	5,647	10,982	14,882	14
순이익(억원)	4,407	8,349	11,150	11
지배주주 순이익	주y	주y	주y	11
EPS(원)	15,563	31,269	44,379	
자기자본(억원)	49,041	56,319	67,224(+19.4%)	
부채총계(억원)	471,423	500,565	744,514(+48.7%)	
영업활동 현금흐름	-21,475	-49,713	-63,999	
CAPEX(억원)	98	216	4,408(20배)	

⚠ 매출액은 평가손익 합산이라 성장 지표로 쓰지 않았다. 증권사 CFO는 트레이딩 자산 증감을 포함한다. 7/30 연결 잠정치(감사 전). 주p 잠정실적 공시에는 재무상태표·현금흐름표가 없다. 주y 우리 적재분에 그 해 값이 없다(회사 미공시가 아니라 수집 공백).

표 1. 두 분기 연속 최고 갱신 (단위: 억원, %)

구분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영업이익	3,377	3,123	2,680	1,802	3,255	4,083	4,089	3,455	6,212	7,890
순이익	2,448	2,321	2,116	1,464	2,356	3,101	3,224	2,469	4,774	6,806
EPS(원)	8,999	8,634	7,961	-	8,906	12,392	13,377	-	18,072	-
2025년 네 분기가 3,255~4,089억원이었는데 1Q26 6,212억 → 2Q26 7,890억으로 두 분기 연속 최고를 갱신했다										
1H26 누계	영업이익 14,102(+92.2%) · 세전 14,512(+95.4%) · 순이익 11,580(+112.2%) · 지배주주 11,564(+112.2%) = FY2025 연간의 103.7%									
별도(2Q26)	매출 154,799억 · 영업이익 6,910억(연결 7,890억) · 세전 7,902억(연결 7,888억) — 세전 단계에서는 자회사 이익을 꺾었다									

주: ⚠️ '매출액'은 평가손익이 합산되므로 1H26 증가율 +211.91%를 성장률로 읽을 수 없다 — 본 리포트는 영업이익·순이익만 다뤘다. 부문별 손익이 분기 단위로 공시되지 않아 계단 상승이 어느 사업에서 왔는지는 연간 데이터(표 2)로만 확인했다. 4분기 영업이익이 두 해 모두 그해 최저 또는 낮은 편이다. 자료: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20260730800016)·사업보고서(2025.12)

표 2. 점유율은 내려가고 수지는 올라갔다 (단위: 억원, %, %p)

구분	2024	2025	증감
주식 중개 점유율	19.21%	17.96%	-1.25%p
수탁수수료	7,139	8,878	+24.3%
매매수수료비용	1,855	1,991	+7.3%(수수료보다 느리게)
위탁매매 수지차익	5,285	6,887	+30.3%
수지율	74.0%	77.6%	+3.6%p
점유율을 잃고도 수지가 30% 는 것은 시장 거래가 커진 몫이다 — 거래대금이 식으면 점유율이 곧 이익의 크기가 된다			
동종 비교(FY2025)	삼성증권 10.8% → 10.3%(-0.5%p) · NH투자증권 8.17% → 8.86%(+0.69%p)		

주: 수지차익은 수탁수수료에서 매매수수료비용을 뺀 값으로, 비용이 수수료보다 느리게 늘어 수지율이 개선됐다 — 비용 구성(거래소·예탁 수수료 등)이 공시 범위에 없어 개선의 출처는 특정하지 않았다. 점유율 하락의 원인(수수료 경쟁·고객 이탈 등)도 공시 밖이다. 동종 비교는 각사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점유율이며 산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자료: 사업보고서(2025.12) 영업 현황

표 3. 저축은행·투자·자본배분 (단위: 억원, %)

구분	2024	2025	증감
키움저축은행 당기손익	-38.7	-150.4	손실 3.9배
키움YES저축은행 당기손익	-320.0	-221.5	손실 축소
두 곳 합	-358.7	-371.9	연결 순이익의 -3.3%
투자·재무 — CAPEX 98 → 216 → 4,408억(20배) · 부채비율 888.8% → 1,107.5% · 영업활동현금흐름 3년 연속 마이너스			
자본배분(10년)	희석 0건 · 환원 4건 전부 3년 내 — 주식소각 2 · 자기주식 취득 1 · 배당 1 · 2026-05-14 취득+소각 동시		

주: 저축은행 두 곳의 손실 합(-371.9억원)은 연결 순이익 대비 3.3%로 전체를 흔들 크기는 아니지만, 키움저축은행은 손실이 3.9배로 커지는 방향이다 — 부실채권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카드 범위에 없어 원인은 확인하지 않았다. CAPEX가 20배로 늘어난 항목 내역도 요약 범위에 없어 특정하지 않았다. ⚠️ 부채비율 1,107.5%는 고객예탁금 등을 포함하므로 제조업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영업활동현금흐름 마이너스도 트레이딩 자산 증감이 포함된 결과여서 이익의 질 지표로 쓰지 않았다. 자료: 사업보고서(2025.12) 중속회사 현황·연결재무제표, 10년 공시 이력, KRX 시세(2026-08-07)

점검 지표

1순위는 주식 중개 점유율이다. 19.21% → 17.96%로 1.25%p 내려갔는데 이번 반기 이익 급증은 시장 거래 확대에 기댄 것이므로, 거래대금이 식는 국면에서는 점유율이 그대로 이익의 크기가 된다 — 동종사 중 삼성증권도 하락했고 NH투자증권은 상승해 방향이 갈린다. 두 번째는 수지율(77.6%)이다. 비용이 수수료보다 느리게 늘어 개선됐으므로 이 격차가 유지되는지 본다. 세 번째는 계열 저축은행이다. 두 곳 합 손실은 연결의 3.3%로 작지만 한 곳은 손실이 4배로 커졌다. CAPEX가 20배(4,408억원)로 늘어난 것은 이 규모의 증권사에서 이례적이므로 항목이 공개되면 확인할 대상이다.

고지

본 자료는 투자자문·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자의견·목표주가·추정 실적을 산출하지 않는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모든 수치는 DART 제출 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인용했고 외부 전망치·제3자 추정치는 쓰지 않았다. 분석과 판단은 전부 자체 산출이다. 근거 공시: 사업보고서(2025.12) ·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20260730800016).

한계: ① 1H26은 감사 전 잠정치다. ② '매출액'은 평가손익을 합산하므로 성장 지표로 사용하지 않았다. ③ 분기별 부문 손익이 공시되지 않아 계단 상승의 출처를 특정하지 않았다. ④ 점유율 하락의 원인과 수지율 개선의 비용 구성이 공시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다. ⑤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가 카드 범위에 없어 손실 확대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다. ⑥ CAPEX 급증의 항목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고, 부채비율·영업활동현금흐름은 증권업 특성상 제조업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았다.